

자료소개—함세덕의 시와 송영의 촌극

양승국

1937년(昭和12年) 1월 7일 창간된 잡지 『월미(月尾)』에 함세덕의 시 <고개>와 송영의 촌극 <인생미두>가 실려 있다. 이 잡지는 인천부(仁川府) 항정(港町) 5정목(五丁目) 의 5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백미사(白眉舍)」에서 간행되었고, 발행인 겸 편집인은 김도인(金道仁)으로 되어 있다. 김도인은 인천의 유지중한 명으로 보이나 자세한 인적 사항은 잘 알 수 없다. 문예란에 이기영, 송영, 엄홍섭, 김해강, 박세영 등 프로문학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방면의 문예사업에 관계한 사람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 잡지는 월간으로 정가 20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간행 여부는 잘 알 수가 없다.

편집후기에 의하면 문예란 원고는 전부 송영의 주제로 실렸음을 알 수 있고, 함세덕이 1937년에 신인의 시인으로 소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함세덕의 시는 동시적 정조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그의 초기적 낭만주의의 작품세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영의 <인생미두>는 인천의 미두(米豆) 투기를 배경으로 망하고 흥하는 인생사를 풍자하고 있는 3경의 촌극이다. 본격적인 희곡은 아니나 1937년 경 프로문학이 쇠퇴하고 난 후의 작가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함세덕의 시와 송영의 촌극은 영인하여 신고 잡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간의 말, 권두언, 편집후기 등을 원문 표기대로 소개한다. 참고로 이 잡지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題號變更에 對하여

「白眉」題號를 變하여 「月尾」라 하였다. 「白眉」도 좋거니와 「月尾」 또한 좋은 것이다. 兩者가 다 字意가 깊고 藝術美가 있거니와 白眉는 普通的이 아니로되 뜻이 높은 것은 「月尾」는 우리 仁川을 表示하는 點에 있어서 適當하다. 그러면 既定한 白眉를 왜 月尾로 고쳤는가?

畏友朴盛源君과 余는 外貌가 恰似한것以上으로 性格과 趣味가 共通되었다. 朴君이 지난 가을에 現在住所에 純白의 二層洋屋을 建築할때에 우리는 爲先 家號를 白眉라고 命名하였다. 그리하여 이 「白眉」 안에서 朴君은 「藥과 化粧品營業」을 開始하였고 余는 本紙發行을 計劃한 것이다. 君과 余는 個人的으로는 親友이나 事業에 있어서는 各己 獨立的 個別的 立場에서에서 進行되는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不拘하고하고 或人은 本紙를 藥業의 宣傳機關이 아닌가? 疑心하난 눈치가 있음을 볼때에 余는 舊然히 題號를 變更하였다. 本紙가 世上에 나갈때 如斯한 誤解者가 增加될가 忌避함이다.

이리하여 本紙는 目的한 使命으로으로 邁進하겠거니와 根한집의 일홈은 變함없는 白眉舍가 確實하고 經營權은 分明히 따로 있는 余의事業임을 明言하는바이다.

「月尾」主幹 金 道 仁

卷 頭 言

主 幹

一

人口 十萬을 算하는 仁川에 이곧을 本位로삼는 出版物 한개쯤 없을소냐? 微力이나마 供獻이 있고저 出生하였으니 曰 「月尾」

二

意義가 깊은 것까지 알면서 無維持問題를 憂慮하고 實現이 없을소냐? 努力해보고저 始作하였스니 曰 「月尾」

三

그야코 六十生靈을 水中에넣은 迷信的 「炎年」이란 丙子도가지않느냐? 새 仁川에서 潮流에 順應하야 탄呼裡에 誕生한 「月尾」

編輯後記

◇ 愼重한 考慮끝에 十日月中旬부터 着手한 本紙는 上堂한 景畧이 있었지만 첫 始作이란 點과 經費의 관계「계」의 오식과 ㅅ 曲折에서도 時日不足과 年末로 印刷늦음과 京城과 仁川이란 間隔때문 等等으로 初志의 幾分之一도 成果를 얻지 못하였음을 먼저 謝過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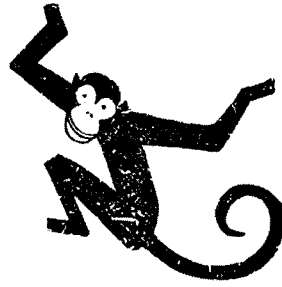
◇ 內容은 보시는 바와 같이 不偏不黨의 綜合紙로 趣味와 文藝를 根幹으로 하고 家庭의 實益과 社會의 常識을 가진 平易하게 記述하자는 것이 本紙의 方針입니다. 勿論 독자 一般의 所期하심에 不足한 點이 많겠으나 今後를 鞭撻해 주시기 바라며 이 「新生兒」의 美醜는 過히 酷評치 마시라고 합니다.

◇ 文藝欄에도 特히 本紙를 爲하여 長篇을 連載해주신 民村 李箕永氏 寸劇의 宋影氏 「콩트」의 尹基鼎氏 이곳을 素材로 쓰신 隨筆에 嚴興燮 殷龜山 兩氏 詩의 金海剛, 朴世永 兩氏 모두다 現文壇의 重鎮들로서 이처럼 本紙를 爲하여 執筆하신 뜻을 數萬독자와 함께 感謝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 祝辭를 주신 것이 여러 篇되는 것을 다음호로 미루게 된것은 年末의 急迫한 期日가닭임을 보내신 先生께와 讀者諸氏에게 아울러 사과합니다. 社會欄과 家庭欄도 斯界의 專門家 여러 先生님의 原稿가 막음날까지 未及된 것이 많아서 亦是 다음 號로 미루었습니다. 括目하실 次號를 期待하십시오.

◇ 조선 童話界의 大家 崔秉和氏의 「동화」를 실게된 것과 新進으로 희곡 作家 咸世德氏의 詩와 小說家 裴燦國氏의 短篇은 반가운 收穫이며求하기 힘든 仁川의 女流文友中에서 金星熙, 崔秀京 두 분의 閨秀小曲을 얻는 것은 實로 錦上添花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號는頁數를 느리고 仁川에순은 文友 여러 분의 原稿를 많이 실려볼 作定입니다.

◇ 이번 第一輯의 文藝欄原稿는 全히 宋影兄의 힘으로 몽였고 印刷의 體裁와 「割付」 등은 嚴興燮兄의 指導가 많았음을 深謝합니다. 活重할 수 있는 것을 讀者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申
劇
人生米豆 (三景)

宋 影

人物。甲、乙、丙、
때。現代、京、京城

1

甲。 뭐 오래간만일세
乙。 아 자넨가? 마름 잘만났네
甲。 아니 왜?
乙。 자네 아직까지 자국이 안 나섰지
甲。 무슨 자국말인가
乙。 버리자국?
甲。 그건 물어봐서 팔하나? 내 팔을 좀 보게 버리는
장제로 원한자가 되었고, 구두에는 풍동상처 (筋風紋)

(置)가 군데군데 나지않았나。
乙。 하하하하 자네도 인제는 아조 비올라 버렸네그러
甲。 비올라지 않고 어떻게 사나? 정말이지 표장표장
하게 살다가는 빈집집밖으로 안 남는다피...그런데
참 자네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모양을 살려냈다. 아
나 무슨직업을 얻었나.
乙。 나 그동안 仁川 갔었지.
甲。 그래 뭐했어.
乙。 손바닥을 몇번 재쳤다 뒤집었다 했으나만 이렇게
되었네
甲。 응 米豆를 했었네그려.
乙。 응 그야말로 米豆는 우리들의 구주의데...치음의
친구들 박힌가지고 사라한것이 음방 음방 불교 불

역사 지금에 온 모든 원인을 알았을 것인데.

甲. 허——그참 자네는 그때도 무슨 이런 짓도 그런. 아마
미도도 좀 거기의 파한 지식의 잊어와할진.

乙. 아냐, 그야말로 거 권드문셈인데 딱히 좋고 손흥지
쳤다 뒤집었다만 하게.

甲. 된어유니.

乙. 그럼.

甲. 그럼 고마체 나도 어떻게해서 불일간 仁川으로 나
라가보겠네, 자 그럼 요담 회 보게.

乙. 응 그럼 잘가게.

2

丙. 아니 자네 어디를 어떻게 부러왔지 가나.

甲. 나 仁川으로 미도하러가네.

丙. (웃다)

甲. 아니 왜 우나.

丙. 케랄 가지말게 간절한 청원세.

甲. 아니 왜? 몇번 손바닥만 어렸다 채천다하면 돈만
원은 걱정없다는데.

丙. 뭐? 누가 그럼은가. 그건 팔정한 거짓말일세. 정

말이지 미도는 더개는 실패를 하기가 쉬움다네. 아
마 열사람의 하면 한사람을 배가 불려지지만 아

름사람의 다 나같은 열면.

甲. 음 참 말듣고보니 자네 말이 매우 비참하이고
라. 더관원 자네집의 지금 다방울인가.

丙. 없다네.

甲. 그럼 어디사 살고.

丙. 아무거나 걸면과로 자넬때가 우리집의만도
모르게 미도는 나의 재산과 집과 처간을 모두 빼
사졌네.

甲. 그럼 자네 맥식구들은.

丙. 아버니는 화가나시며서 몰아가시고 어머니는 의가
때으로 가서 불며지고 내키는 본가사리를하고 나
는 어떻게 돌아다니네, 케랄이지 미도말게.

甲. 허—이거참 권말났네 그럼 이걸 어떻게하나. 집안
의 처간이란 처간과오나부행이든 모두 팔고 삼척서
저우 데원을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정말이지 의도
은 나의 최후를 판단해줄 운명을 가지고있네.

丙. 그보게 이상이면 그럼백원을 그따로 첫버리게.
甲. 아널세 결심했네 나쁜 집안에서 호기를 피우고나
왔다네. 며칠뒤에는 죄으로 수천원은 가지고 돌아온
다고 아니 어떻게 부끄러워사라도 그냥 들어가나.

丙. 그럼 모르겠네 도보세. 아—또 나는 어디로가나.
甲. 잘가게 부자되거든 좀 보와올세.

丙. 고마체 자—도보세.

3

